

공개입찰, 공동구매를 통해 경쟁력 배가



▲ 결집을 다지고 있는 회원들이 한 자리에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농가들은 사양관리에 더욱 관심이 커지고 있다. 파주지역 육계인들도 면세유 지원 등 겨울채비에 분주하다. 지난 11일 파주육계지부(지부장 김창식)는 파주연천축협 회의실에서 월례회를 갖고 추진사항 및 현안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었다. 이날 주요안건은 육계농가들의 권익보호와 생산성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파주육계지부(지부장 김창식)는 타 지부들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농가들의 규모가 크지 않고 군납과 사계(私鷄)의 출하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다 보니 육계산지가격과 병아리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군납을 담당하는 축협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 농가 권익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김창식 지부장

임원명단

지 부 장 : 김창식

부지부장 : 윤원용

총 무 : 문병옥

감 사 : 김경래



▲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파주연천축협 회의실에서 월례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파주육계지부는 총 19개 농가에 규모는 약 60만수정도로 농가당 사육규모가 2~3만수로 크지는 않다. 하지만 '세이팜영농조합(조합장 김춘권)'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농가 생존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전국의 어느 지역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세이팜영농조합은 파주와 연천을 중심으로한 경기북부지역의 육계인이 설립한 새로운 형태의 영농조합이다. 2년 전 청정계 부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파주와 연천지역 육계인들이 산업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영농조합을 설립한 것으로 청정지역에서 생산한 안전한 닭고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공동 창출하기 위해 설립의 목적을 두고 있다. 총 48개 농가가 참여하고, 200만수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춘 세이팜영농조합법인은 사육부터 유통, 소비자까지 전 과정을 통하여 전문화된 관련업계와 협업하여 상생의 길을 찾아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사업과 지역축협과의 연계를 통해 경쟁력있는 브랜드를 연구·개발해 모든 농가가 안정적인 생산과 수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 조합원이 머리를 맞댈 것이라며 당찬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조합설립에 주축이 된 사람이 바로 김창식 지부장이다. 처음에는 '가능할까?' 하는 주위의

시선이 있었지만 김창식 지부장은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 사료, 약품 자재 등 농가들이 생산비 요소를 줄일 경우 이 몫이 고스란히 농가들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직시한 것이다. 이는 업체들간의 공개입찰을 통해 가능했다. 결제조건도 물론 좋아졌다. "일반 사계판매의 경우 결제가 70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14일 이내에 모든 결제가 끝납니다."

이날 회의에서도 사료회사에 대해 공개입찰을 하기로 결정하고, 왕겨에 대해서도 공개입찰을 진행할 뜻을 밝혔다. 왕겨의 경우 같은 지역에서 생산되어 공급되는 것이 오히려 타 지역보다 높게 형성되면서 불이익을 받아 왔던 불합리함을 이제는 씻어버리기 위해서이다. 군납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연간 병아리 계약도 신중하게 검토키로 하는 등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파주육계지부는 현재 세이팜을 통해 학교급식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판매장까지 계획하고 있을 정도로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장단콩축제(11월 18~20일)에도 참여해 닭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회원들의 화합의 장을 만들기도 하였다.

취재 | 김동진 편집장
djkim300@hanmail.net

